



# 충성대신보



▲ 55기 사관생도들이 정경두 국방부장관주관으로 학교 연병장에서 졸업 및 임관식을 갖은 후 기념촬영을 하면서 야전에서 즉각 임무수행이 가능한 최정예장교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였다.

## 유능한 안보 · 튼튼한 국방의 초석이 될 것을 다짐하다!

### 496명의 사관생도, 야전에서 즉각 임무수행 가능한 최정예장교로 탄생



본교는 지난 3월 6일 오후, 학교 연병장에서 생도 55기 졸업 및 임관식을 갖고 야전에서 즉각 임무수행이 가능한 최정예장교 496명(여군 20명 포함)을 배출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열린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족 등 외부인 초청 없이 학교 내 장병과 군무원, 사관생도 등 최소 인원만 참석했다. 이날 졸업 및 임관하는 55기 사관생도 496명은 지난 2018년에 입교하여 2년간에 걸쳐 일반학 전공 및 군사학 교육 과정을 이수하였으며, 전공별로 문학사, 이학사, 공학사 학위와 함께 군사학사 학위를 동시에 취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석재(만 26세, 보병) 소위가 대통령상, 박진우(25세, 보병) 소위가 국무총리상, 노현민(26세, 정보통신) 소위가 국방장관상을 받았다. 이밖에 박송은(24세, 보병) 소위가 합참의장상, 장재혁(22세, 보병) 소위가 연합사령관

상, 고은비 소위(25세, 보병)가 육군참모총장상, 김원영 소위(23세, 보병)가 해군참모총장상, 서지원 소위(26세, 포병)가 공군참모총장상, 노의창(25세, 보병)·한예나(26세, 정보)소위가 학교장상을 수상했다.

대통령상을 수상한 이석재 생도(26세, 보병)는 일본 리츠메이칸대학교 재학 중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육군 병사로 자원입대했다. 성실히 군복무를 하며 대한민국 군인이라는 꿈을 갖게 되었으며, 장교의 꿈을 이루기 위해 3사관학교에 지원하였다. 생도 생활 동안 부단한 노력과 끈기를 갖고 생활한 결과,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임관하게 되었다. 임관자 중 해외 유학 이력을 갖고 있는 생도는 이석재 생도를 포함해 총 8명으로, 국가에 헌신하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장교의 길에 도전해 왔으며, 글로벌 리더십을 겸비한 리더로서 그 활약이 기대된다.

또한 최돈형(22세, 보병) 소위는 6·25 전쟁에 참전했던 외조부 윤현기 선생과 외종조부인 윤현옥, 윤병기 선생, 백부 최운집 선생, 그리고 월남전 참전용사인 백부 최태집 선생 등 5명의 참전용사가 있는 병역 명분이 출신이다. 또한, 아버지는 3사 20기 출신 예비군 동대장, 누나는 해군 예비역 중사, 형은 육군 예비역 중사 출신의 군인가족이다. 최 소위는 “어려운 시기에 국가를 위해 헌신하

선대의 뜻을 이어가게 된 것을 명예롭게 생각하며, 책임감 있는 장교가 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할아버지, 아버지에 이어 누나와 본인까지 군인의 길을 걷고 있는 군인 가족도 탄생했다. 할아버지는 육군 대령으로 예편했고, 아버지는 현역 육군 중령, 여동생은 간호사관학교 3학년 사관생도인 박호군(23세, 보병)소위는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꿈을 키우게 되었고, 온 가족이 군인의 길을 가게 되어 뿌듯하고 든든하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 밖에 생도생활을 하면서 자기개발을 통해 각 분야에서 두드러진 실력을 드러낸 생도들도 많다. 합참의장상을 수상한 박송은(24세, 보병) 소위는 생도생활을 하며 부단한 자기개발을 통해 태권도 4단에서 5단으로 승급하여 유도 2단, 경호무술 1단, 검도 1단까지 총무도 9단을 달성하였다. 특히, 박송은 소위는 한예나(26세, 정보) 소위와 더불어 육군300위리어로 선정될 만큼 육군에서 요구하는 정예장교의 자질을 완벽히 갖춘 인재이다. 아울러 이번에 학교장상을 수상하는 한예나 생도는 사관생도 시절 토익 990점 만점을 받은 우수한 어학 실력도 겸비한 인재이다.

임성민(24세, 보병) 소위는 특공무술 1단, 태권도 3단, 합기도 1단 등 무도 관련 자격증과 소방안전관리자 2급 등 13개

의 자격증을 취득하여 화제가 되었다. 이 밖에 태권도 4단 이상의 무도 고단자들도 37명이나 배출되었다. 한편, 이번에 임관하는 신임 소위들은 전원 체력검정과 사격에서 특급을 달성하였을 뿐 아니라, 전산 분야와 무도에서 초단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육군에서 통제하는 임관종합평가 6개 전 과목을 우수하게 통과하는 등 정예 장교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갖췄다. 이들은 임관 이후 각 병과 학교에서 신임장교 지휘참모과정을 수료 후 야전부대에 배치되어 장교로서의 본격적인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1968년 국내의 안보 상황이 위태롭던 시기에 정예 초급장교 양성을 목표로 설립된 학교는 지금까지 약 15만여 명의 정예장교를 배출한 호국간성의 요람으로 국가적 위기 때마다 극복에 앞장서며 굳건한 안보태세 확립에 기여해 왔다. 이러한 빛나는 학교전통을 계승하여 강하고 스마트한 정예장교로 탄생한 55기 졸업생들이 앞으로 야전에서 펼쳐나갈 눈부신 활약을 기대한다. 편집인 고성진

**지면안내**

- 02 학교소식 | 새해를 빛낸 생도특강·초빙강연
- 03 학교소식 | 56·57기 사관생도 입·진학식
- 04 생도광장 | 사관생도 우리들의 이야기
- 05 생도광장 | 훈육대 소개·생도양케이트
- 07 오피니언 | 사설·총성대칼럼
- 10 교양 | 건강상식·명문가를 찾아서
- 11 동문소식 | 14·15대 총동문회장이 취임식
- 12 기타 | 발전재단 소식



# 본교 사관생도 57기 입학식 개최

### 57기 523명, 충성 기초훈련 마치고 2년간 정예장교 되기 위한 담금질 시작

본교 57기 사관생도 523명(여성도 54명 포함)이 전사적 기질을 함양하는 6주간의 충성기초훈련을 끝내고 21일 입학식을 갖고 정식 사관생도가 되었다.

충성기초훈련은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군인정신을 함양하며 군인 기본자세 확립 및 체력증진과 기본 전투기술을 이해하는 훈련이다.

매서운 찬바람과 영하의 날씨가 계속되던 지난 1월에 입교한 57기 생도들은 6주간의 충성 기초훈련을 통해 육체적·정신적 한계를 극복하고 정식 사관생도로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다. 군인정신과 전투기술을 숙달하는 충성 기초훈련은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거듭나는 과정으로 그 어떤 과정의 훈련보다 힘들고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입학식 행사는 학교 전 장병과 군무원, 선배 사관생도들의 축하와 격려 속에서 국민의례에 이어 입학 신고 및 선서, 학년장 수여, 학교장 축사, 입교생도 소감문 낭독, 분열 순으로 성대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분열이 시작되자 입교 전의 모습과 달리 늠름하고 씩



▲ 충성연병장에서 57기 신입생도들이 늠름하고 패기 있는 모습으로 분열을 진행하고 있다.

씩한 모습으로 행진하는 57기 사관생도들의 모습에 학교 장병과 선배 사관생도들은 아낌없는 찬사와 힘찬 박수로 격려를 하였다.

이날 학교장(소장 장달수)은 축사를 통해 “영하의 추위와 제반 난관들을 이겨내고 오늘 이 자리에 사관생도로 당당하게 서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 매우 자랑스럽다”며, “국가와 군이 요구하는 강하고 스마트한 정예장교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관생도들은 앞으로 2년 동안 전공과목과 군사학을 이수하고 졸업할 때 군사학과 일반학위를 동시에 취득하게 되며, 사관생도로서 패기와 열정, 그리고 엄격한 자기관리를 통해 올바른 인성과 가치관을 확립한 정예장교로 성장하게 된다.

한편, 오늘 입학한 생도들 가운데는 이색경력 소유자가 많아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신성은(만 24세, 95년생) 생도는 미국 University of Utah을 졸업하고 조국에 헌신하기 위해 3사관학교에 입학하였다. 초·중·고·대학을 모두 미국에서 졸

업한 신생도는 고교 재학 중 오바마상을 수상한 우수한 인재로 보장된 미국 생활을 버리고, 장교가 되어 국가에 대한 헌신과 희생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입교하였다.

아울러 일본 리츠메이칸 아시아태평양대학에서 유학 중 입교한 이소연(만 21세, 98년생) 생도는 어릴 적부터 꿈이었던 군인이 되기 위해 입교했다고 한다. 특히 이소연 생도는 토익 990점 만점 보유자로서 한미 연합작전은 물론 군사·외교분야에서 장래가 매우 촉망되는 우수한 인재이다. 이들을 포함하여 유학 중 입교한 생도는 총 8명이 있다.

쌍둥이 또는 남매가 함께 사관생도의 길을 걷게 되어 화제가 된 사례가 있다.

이성재(만 23세, 96년생)생도는 3사관학교 56기로 재학중인 쌍둥이형 이광재 생도의 뒤를 이어 후배기수로 입학하였고, 이경미(만 24세, 95년생)생도는 56기 이동휘 생도의 누나로 남매가 함께 사관생도의 길을 걷게 되었다.

부사관 출신으로 입교한 인원중 화제가 되는 인원도 있다.

여성도 가운데 김은혜(만 24세, 95년생)생도는 해병대 하사로 복무하고 명예로운 장교가 되고 싶어서 3사관학교에 입교하여 큰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부사관 복무 중 위탁교육을

통해 구미대학교에서 전문학사를 취득함으로써 3사관학교 입학자격을 갖춘 사례로써 그 의미가 남달랐다. 송승훈(만 24세, 95년생), 김도윤(만 24세, 95년생)생도는 3개의 군번을 보유하게 된 사례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두 생도는 모두 병에서 부사관을 거쳐 장교가 되기 위해 57기로 입교하였다. 장차 병과 부사관을 가장 잘 아는 리더십 있는 장교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부경(만 23세, 96년생)생도는 약학박사인 아버지와 약사인 어머니의 밑에서 자라고 친언니 2명이 모두 의사와 약사인 전형적인 의료인 집안 출신이다. 김 생도가 장교의 길을 걷겠다고 말했을 때 집안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준비하는 모습에 부모님께서도 반대를 접고 적극적인 후원자가 되었고, 이에 힘입어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인이 되고자 입학했다고 한다.

한편, 이날 4학년으로 진학하는 56기 생도 490명(여성도 47명 포함)도 함께 축하의 시간을 가졌다. 대위 이지수



▲ 훈련 성적 우수 생도들이 상장수여식 간 경례를 하고 있다.

주무관 이경희



##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를 빛낸 생도특강 및 초빙강연



▲ 김채식 육군본부 주임원사(2. 3) '사관생도와의 대화'



▲ 황인권 2작전사령관(2. 5) '더 강하게, 더 완벽하게, 더 따뜻하게'



▲ 前 학교장 서정열 장군(2. 17) '찐 장교가 갖춰야 할 마음과 절절포'



▲ 심동현 한·미연합사 기획관리참모차장(2. 19) '연합작전 수행체계'



▲ 한동주 3사 총동문회 회장(2. 20) '성공하는 인생'





## 신년맞이 결의대회 · 영천호국원 참배행사

호국영령들의 고귀한 희생과 숭고한 뜻을 기리며

지난 1월 2일, 학교 전 간부는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를 맞이하여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선배 전우들의 넋을 위로하고, 학교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기 위한 신년맞이 결의대회를 교내 충훈탑에서 가졌다. 행사는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으로부터 학교장 및 주요직위자들의 헌화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어서 학교장을 비롯한 주요직위자들은 국립 영천호국원을 찾아 현충탑을 참배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고귀한 희생 정신을 기리고 “강하고 스마트한 정예장교



양성”을 통해 그 정신을 이어받아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한편, 학교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호국영령들의 명복을 기원하는 추모시를 작성하고 조국, 명예, 충용의 교훈 아래 위국헌신 군인본분의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고, 올바른 국가관과 안보관을 확립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주무관 김민수**



▲ 1월 2일 학교장을 비롯한 학교 전 간부가 교내 충훈탑에서 신년맞이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 ‘강한 육군을 향한 여정’ 서육 육군참모총장 생도특강

지난 1월 23일 서육 육군참모총장이 동계군사훈련 교육 중인 사관생도들을 격려하고 육군 정예장교의 올바른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한 생도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은 ‘강한 육군을 향한 여정’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사관생도 시절부터 육군참모총장이 되기까지의 인생의 과정을 통해, 각 계급에 따른 장교의 역할과 자질을 설명하고 이를 위한 가치관, 리더십 등의 중요

성을 강조했다. 또한, 열정적인 끈기로 더 큰 성공을 향해 도전하라는 교훈을 전해 주어 사관생도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한편, 서육 육군참모총장은 육군의 대표이자 최고 선임자로서, 국제평화를 위한 군사외교관으로서, 육군의 미래를 여는 CEO로서 강한 육군, 자랑스러운 육군, 함께하는 육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56기 기자생도 이선빈



▲ 서육 육군참모총장이 강연 후 학교장(소장 장달수) 및 사관생도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학교시설 현대화(BTL 사업) 추진

**BTL(Build Transfer Lease):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를 이를 임차해서 쓰는 민간투자사업 방식**

군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과학기술 군으로 혁신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본교도 이러한 군의 변화에 부응하여 미래전장을 주도할 수 있는 미래형 인재의 선발과 양성, 스마트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환경 조성, 최적의 지원체계 구축 등 혁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본교는 10년 전부터 학교시설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지원시설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해 12월, 학교시설 종합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노후화된 학교시설 현대화 개선 사업이 BTL 사업으로 선정되고 국회 예산심사에서 863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학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장기발전 프로젝트의 80% 이상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학교가 추구하는 미래지향적 첨단과학화 군이 가능해지고, 획기적으로 개선된 교육환경에서 사관생도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향후 학교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학교시설 종합발전계획에 의하면 본교는 주둔지를 5개 권역(지휘, 생도, 교육, 지원, 주거)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에 부합된 시설을 신·개축하여 최적의 교육환경 및 근무, 주거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중 지휘권역에는 학교본부와 역사관, 생도권역에는 생도 전용시설, 교육권역은 교수부와 일반·군사학 교육지원시설, 지원권역에는 근지단과 종교시설, 주거권역에는 숙소와 복지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국회예산안 통과로 추진되는 BTL 사업의 대상시설물은 본청, 총성관, 중용관, 생도식당, 안보교육장, 사열대 총 6개로서, 각각의 위치와 내용은 오른쪽의 표와 그림과 같다. 현재 본 사업은 기획재정부(KDI, PIMAC-공공투자관리센터)로부터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평가받고 있으며 타당성 검증이 완료되면, 사업 고시(20년 8월), 협상대상자 선정(20년 12월), 사업계약 체결(21년 6월), 실시 설계(21년 10월) 등의

과정을 거쳐 공사 착공 및 추진(21년 12월~25년 12월)에 들어갈 예정이다. 강하고 자랑스러우며 함께하는 육군3사관학교로 발전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은 것 같아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학교의

구분	사업명
본청	• 규모: 6,580㎡ (1,990평)
총성관	• 규모: 3,143㎡ (950평) / 수용인원: 1,909명
제3중용관	• 규모: 23,795㎡ (7,197평) - 생활관 및 교육·편의시설 포함
생도식당(2층)	• 규모: 3,760㎡ (1,137평) / 수용인원: 1,300명
안보교육장	• 규모: 2,188㎡ (661평) / 수용인원: 2,500명
사열대	• 규모: 630㎡ (190평)



▲ 학교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인한 미래 청사진

군수계획과장(중령 박필수)은 “이번 사업을 도약적 변혁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무관 길진규**



# 사관생도 우리들의 이야기

56기 기자생도 유동엽 · 최정운



▲ 훈련 도중 휴식을 취하는 사관생도들



▲ 충성기초훈련 가입교식간 단체 선서를 하고 있다.



▲ 재교생들이기훈생도들을 환영하고 격려하며 기훈생도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호랑이굴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 자신감을 가지고 개인 화기 사격을 하고 있다.



▲ 화생방 훈련 도중 방독면 착용을 실시하고 있다.



▲ 연습용 수류탄을 활용하여 수류탄 훈련을 하고 있다.



▲ 각개전투 훈련 간 생도들이 고지점령을 위해 달려가고 있다.



▲ 원전군장 20km 행군을 실시하고 있다.



▲ 수료식 간 훈련성적 우수생도들이 경례를 하고 있다.



▲ 명예준수를 다짐하며 잘못된 마음을 씻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세심의식



57기 사관생도들은 지난 1월 9일부터 2월 19일까지 6주간 충성기초훈련을 진행했다.

군인기본자세 및 올바른 가치관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내적가치 함양토의와 지휘훈육교육, 기초체력단련을 실시하였으며 개인화기, 구급법, 각개전투 등 훈련을 통해 생도로서 기본전투기술을 이해하여 생도생활의 기본소양을 구비하게 되었다.



훈육대 소개: 3중대 지조와 절개의 상징, 최영 중대

#1 중대의 역사·상징



3중대는 최영 중대이다. 최영 장군은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라는 말을 좌우명으로 하여 평생 욕심 없이 청렴하게 살아온 군인이다. 최영 장군은 고려 말의 장수로서, 국가의 위협

이 되는 외적과 내부의 반란을 진압한 영웅이자 멸망하는 고려에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했던 인물이었다. 최영 장군은 고려에 쳐들어온 홍건적을 물리치고, 이후 내부의 반란을 진압하였다. 1376년에는 왜구가 쳐들어오자, 환갑의 나이에도 전쟁터에 나갔다. 그때 맨 앞에서 적진으로 뛰어들었는데, 화살 하나가 날아와 그의 뒷입술에 꽂혔다. 하지만 최영은 태연하게 화살을 뽑은 뒤, 아무 일 없었던 듯 싸움을 지휘하여 왜구를 전멸시킨 유명한 일화도 있다. 이후, 요동 정벌을 계획하고 정벌군의 출정을 명했으나, 이성계의 위화도회군으로 요동 정벌이 좌절되었다. 후에 이성계가 개성에 난입하자 이를 맞아 싸우다가 체포되어 유배가게 된다. 최영 장군은 유언으로 "내가 한 번이라도 사사로운 마음을 품은 적이 있다면 내 무덤에 풀이 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풀이 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3중대는 이러한 최영 장군의 대쪽같은 지조,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본받아 정예 장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중대이다.

#2 중대가



최영 중대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청년 사관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충성대의 별이 되어 조국 위해 빛나리  
최영 중대 사관생도다 하나 둘 셋!  
조국을 위하여 하늘 높이 비상하리라  
명예를 드높이며 충성대를 지키리  
충용을 깊이 새기고 사자 정신 새기고  
푸른 꿈을 키워나가리라  
포효하라 3중대  
최영 중대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청년 사관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충성대의 별이 되어 조국 위해 빛나리  
사자 중대 사관생도다!



#3 훈육관을 만나 - 훈육대장 소령 강재석

Q 훈육대장님의 좌우명이 궁금합니다.

A 긍정의 힘이다. 생도 시절에 항상 불평과 불만이 있었고, 그러한 생각들이 나의 가치관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을 느끼고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긍정적인 마음으로 군생활을 하고 있다. 지금 생도들도 무엇이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인지에 대한 고민을 통해 자신만의 좌우명을 만들 것을 추천한다.



Q 훈육대장으로 왔을 때의 느낌이 궁금합니다.

A 생도 시절 동기들과의 관계, 부여된 임무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욕심은 많았지만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지 못했다. 이곳으로 올 때 후배들이 저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고 '아~ 그때 그랬다면...' 하고 후회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또한, 훈육관으로 임명되고 지금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매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후배들을 지도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Q 훈육대장으로 앞으로 꼭 해보고 싶은 것은?

A 생도들과 국내 여행을 가고 싶다. 이왕이면 중대 단위로 갔으면 좋겠고, 가고 싶은 곳은 지리산 종주, 서바이벌 등이다. 아마도 모든 훈육관이 비슷한 생각일 것 같은데 제일 하고 싶은 것은 생도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고 추억과 신뢰를 쌓으며 서로를 배우는 것이 아닐까 싶다.

Q 3중대 생도들에게 감동받았던 적이 있습니까?

A 서로 간의 전우애가 넘쳐나는 순간들이 나에게 있어서 감동이다. 최근에 한 사례로는 3학년 생도들이 야간분대 전투 훈련을 마치고 복귀하는 날이었다. 동계군사훈련 동안 쉴 틈 없이 군사훈련을 매진해 오면서 다들 지쳐가고 있었는데 4학년 생도들이 본인들의 사비를 털어서 후배들이 복귀하는 중대 현관에 간식을 준비하고 하나씩 나눠주면서 훈련을 마친 후배들에게 격려하는 모습은 타 중대에서 찾기 힘든 보기 좋은 모습이었다. 이러한 모습들이 모여서 감동이 되고 훈육관으로서 정말 힘이 나게 하는 것들이다.

Q 생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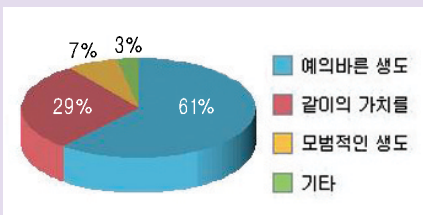
A 모두 각자가 다양한 생각과 입장을 가지고 이곳 충성대로 왔을 것이다. 여기 입교한 것은 누가 시켜서가 아닌 본인의 의지로 선택한 결정이다. 입교하고 난 뒤 모든 것이 물 흘러가듯이 놔둔다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시간은 흘러갈 것이다. 죽을힘을 다해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을 찾아가는 연어처럼, 이곳에서 여러분의 삶은 치열하고 숨 가쁘게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상황은 여러분들이 목표로 순탄히 나아가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광의 순간을 함께 맞이할 것이다. 2020년을 맞이하여 우리 군생활의 고향인 영천에서 군인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올 한해를 새롭게 준비했으면 좋겠다.

55기 기자생도 현선학



생도 앙케이트

56기가 57기에게 바라는 생도의 모습



다사다난했던 2019년이 지나고 어느덧 2020년 첫 일반학기가 다가오고 있다. 입·진학식을 통해 56기가 이제 후배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할 4학년이 되었다.

이와 관련해 충성대 신문사에서는 '56기가 57기에게 바라는 생도의 모습'이라는 주제로 56기 단독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했다. 56기 생도 총원 490명 중 348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에 참

여한 348명 중 214명(61%)이 '예의 바른 생도', 104명(29%)이 '같이의 가치를 아는 생도', 22명(7%)이 'FM적인 모범을 갖춘 생도' 순으로 나타났고 다른 9명(3%)의 생도들이 기타의견을 내어 주었다.

먼저, '예의 바른 생도'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는데, 그 이유는 2가지다. 우선 3사 생도는 추후 미래 육군을 이끌어 나갈 인재로서 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의 사관생도라면 예의는 당연한 기본 소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다음으로는 사관학교의 특성상 훈육관, 선배생도들과 같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예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표를 많이 받은 내용은 '같이의 가치를 아는 생도'이다. 같이의 가치에 표를 선택한 56기 생도들은 57기 생도들이 단독으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동기, 선배들과 함께 어우러져 생활하기 때문에 같이의 가치를 진정으로 깨닫고, 생도답게 행동했으면 좋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선택했다.

세 번째로 표를 많이 받은 내용은 'FM적인 모범을 갖춘 생도'이다. 흔히들 FM이라고 하면 딱딱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본래 FM이라는 것은 야전교범이나 현장안내서 등을 뜻하는 'Field Manual'의 약자이다. 따라서 FM이라는 말은 정식으로, 정석대로, 규정대로 하자는 이야기다.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처음 학교생활을 시작할 때 기반을 잘 다져놓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부터 모범

적인 생활을 실천하여 생활을 잘 이끌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기타의견 중에는 '도구로서 사람을 대하지 않는 생도'와 '윗기수의 잘못된 점을 배우지 않는 생도'가 있었다. 또한, '명예를 실천하는 생도'와 '자신의 생도생활을 즐길 줄 아는 생도', '할땐 하고 쉴때 쉬는 생도', '품을 아는 생도' 등의 의견들도 있었다.

1년 전, 56기들도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처음 생도대로 넘어왔을 때 낯설었고 적응의 시간이 필요했다. 57기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2년간 많은 일들이 펼쳐질 것이다. 어떠한 것을 수행하는 위와 같이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생활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57기 후배 생도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56기 기자생도 송승환



추천영화



영화 기생충은 한국 사회의 상류층과 하류층의 계급갈등에 분제를 제기한 영화이다. 빈부격차의 심화, 청년실업의 확산 등 자본주의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드러내지만 두 계층 간의 대립은 선과 악의 대립이라는 고전적인 형식이 아닌 이해관계에 따라 빈민층끼리 싸우는 등 복잡하게 얽혀진 모습으로 나타난다.

기생충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숙주에 얽혀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빈민층의 삶을 살아갔던 기택의 가족도 이와 같다. 밖에서 집안이 흰히 보이고 취객의 난동에 조용할 틈이 없는 열악한 반지하 방에 살아가던 기택의 가족은 어느 날 아들인 기우가 부잣집인 박사장네 가정교사로 들어가는 사건을 계기로 자신들의 신분을 위장하여 박사장네 집에 운전기사, 가정부, 미술교사 등으로 취직하여 일하게 된다.

이때 기택 가족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박사장과 그 일가의 모습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의 모습과 같다. 심지어 기택이 동의를 향해 참 좋은 분이라고 말하는 장면에서는 박사장이 조롱 받는 듯한 느낌마저 준다. 이러한 기택 가족의 모습은 숙주의 몸에 기생하여 피를 빠는 기생충과 같이 묘사되며 악의 축으로 묘사될 정도로 사악함을 느끼게 한다. 허나 지하실에서 숨어있던 근세와 기택 가족이 마주치면서 상황은 큰 변화를 갖는다. 숙주를 온전히 독점한 채로

기생충

- 누가 기생충이고 누가 숙주인가 -

살아가던 기택이 또 다른 기생충을 만나게 된 것이다. 서로의 존재에 놀라서 당황하고 있을 때, 곧 기택 가족과 근세 가족은 서로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고 싸움을 시작한다. 이 두 빈민층은 상류층의 박사장네에 힘을 합쳐 대항하지 않는다. 오직 서로가 생존을 위해, 숙주를 독차지하기 위해 싸울 뿐이다.

이와 같은 대립은 한국의 사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상류층이 만들어 놓은 불공평한 시스템에서 하류층은 서로 힘을 모아 맞서지 않고 자기들끼리 편을 가르고 싸우기에 바쁘다. 이때 상류층을 대표하는 박사장네는 그들의 치열한 생존경쟁을 알지도 못한 채 그저 '냄새'가 난다며 그들의 가난함을 비웃고 혐오할 뿐 대립에 참여하지 않는다.



즉, 박사장의 집안은 상류층이 규정한 사회시스템을 의미하며 모든 갈등이 일어나는 이곳에서, 생존을 위해서라도 하류층은 자유로울 수 없다. 집 밖을 나서는 순간 다들 경제적으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두 하류층은 '자신들의 생존이 왜 상류층에 달려있는가?'에 대한 사실에 의문을 제기하고 상류층에 대항하는 것이 아닌 자기들끼리 싸움을 지속한다.

'기생충 : 다른 동물체에 붙어서 양분을 빨아 먹고사는 벌레'

결국 숙주인줄만 알고 있었던 박사장네 조차도 사실은 사회의 불공정한 구조를 이용하여 하류층인 기택과 근세 가족의 생존을 억압하는 기생충과 같은 존재인 것이다.

55기사관생도 강재원

책소개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지은이:아마무치 슈  
옮긴이:김윤경  
출판사:다산북스

우리는 늘 국방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전력을 강화한다. 전차, 화기, 화학무기 등과 같은 유형의 전력이 있는가 하면 정신전력과 같은 무형의 전력이 있다. 오늘 소개할 책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는 지적 전투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철학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야기하고 있다.

군은 언제나 사람과 조직을 다루는 곳이다. 특히 장교가 되고자 하는 우리는 사람과 조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능력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선 치밀한 관찰과 계산된 사고를 통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관건이며 이러한 조직 관리는 부대의 전투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달의 책, '철학은 어떻게 삶

의 무기가 되는가'는 크게 사람, 조직, 사회, 사고(thinking)의 4가지 장으로 나뉜다. 이 구성이 상당히 체계적이다. 작은 개념부터 큰 개념까지 차례대로 나열하여 설명하며 우리의 사고의 틀을 확장 시켜준다. 친절하게도 마지막 장에서 사고의 오류에 대해 한 번 더 짚어주며 앞서 설명한 3개의 장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 주고 있다.

각 장은 열 개 남짓한 주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주제마다 한 명의 철학자와 그 철학자가 주로 연구한 주제를 3~4장 정도의 분량으로 서술하였다. 시간이 없어도 짧은 시간만 투자하여 읽을 수 있으며 순서대로 읽지 않고 목차에서 마음에 드는 주제를 골라 읽을 수 있다.



50명의 철학자가 논한 50개의 주제를 요약하여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책 한 권 만으로도 50권의 책을 읽은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언제 일에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까?', '뛰어난 리더의 조건', '사람은 논리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와 같이 사관생도라면 꼭 읽어보아야 할 주제들이므로 꼭 시간을 내어 읽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56기 기사생도 정아란

생도 기고문

충성대에서의 2년의 시간, 그리고 큰 변화



여단장생도 공병규(55기)

2018년, 처음으로 충성대에 입학하고 난 뒤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결코 오지 않을 것 같았던 시간이 다가오고 우리는 임관을 준비하고 있다.

이곳 충성대는 나에게 큰 변화를 선물 해주었다. 매일같이 동기들과 함께 생활하고 훈련하면서 서로에게 큰 버팀목이 되어주어 전우애가 무엇인지 가슴 뜨겁게 느끼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또한, 훈육관을 비롯한 간부님들은 생도들이 강인한 체력을 기르고 심신을 단련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해주었고 무

엇보다 창끝 전투력의 핵심인 소대장으로 나가 임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도덕성과 인성, 그리고 확고한 군인정신을 심어

준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육군3사관학교에 처음 들어오던 날



주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동기들의 격려와 응원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훈련들을 이겨낼 수 있었고 방향성이 흐트러지고 마음을 잡지 못할 때 훈육관님들의 열정적

'항상 미소를 잃지 않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자'라는 좌우명을 정하고 항상 실천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어렸을 때부터 상대방을 선한 인상으로 기쁘게 해주고 싶었고, 나에게서 긍정

적인 에너지를 받았으면 했다.

그 결과, 언제 어디서나 미소를 잃지 않고 주변 동기, 후배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해주었고 나의 이러한 진심을 믿어준 동기·후배들 덕분에 초심을 잃지 않았다.

이제는 후배들에게 나의 자리를 넘겨주려 한다. 부족하고 서툴렀던 나를 당당하고 패기있는 사관생도로 이끌어주고, 조국의 안보를 책임질 정예장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준 정든 충성대! 내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후배들아! 너희들도 나와 같은 생각과 마음으로 사관생도 생활을 잘하리라 믿는다. 그리고 임관의 날이 다가왔을 때 충성대의 은혜를 잊지 않았으면 한다. 자신의 성장을 위한 수양터 충성대에서 '일일신우일신' 정신을 항상 가슴 속에 담고 매일 성장하는 사관생도가 되길 바란다.

56기·57기 후배들아, 선배들이 아전에 먼저 나가 3사인의 명맥을 이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니 너희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와 좋은 모습으로 만나자.



사설

###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훨씬 아름답다

올해는 2020년 경자년(庚子年)이다. 경(庚)을 오행(五行)으로 보면, 금(金)의 성질에 해당하고, 오방색(五方色)으로 따지면, 우백호(右白虎), 즉 흰색에 해당한다. 자(子)는 12지(支)의 첫 번째로 '쥐'를 의미한다. 60간지(干支) 중 37번째에 해당하고,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흰색 쥐'의 해라고 할 수 있다. '쥐'는 예로부터 영리한 동물로 알려져 있다.

모든 국민이 새로운 한 해를 매우 활기차게 시작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괴질(怪疾)로 인해 세상이 매우 어둡기만 하다. 하지만 새로이 군문(軍門)에 들어서는 백호(白虎) 55기들로 인해 군은 더욱 밝아질 것이라 자부한다.

올해 교수신문에서 뽑은 사자성어로 '공명지조(共命之鳥)'라고 한다. 평상시 학회에서 뽑던 영남대학교 최재목 교수님이 추천한 사자성어라 더 애착이 간다. '공명지조'는 아미타경(阿彌陀經) 등 불교 경전에 등장하는 전설상의 새로, 두 개의 머리가 한 몸을 갖고 태어난 새를 말한다. 이들은 서로의 삶을 공유하는 '운명공동체'를 뜻한다.

하지만 이 두 마리의 새는 자중지란(自中之亂)이 일어나 결국은 죽고 만다. 일부 경전에는 '두 마리' 중 한 머리가 몸에 좋은 열매만은 나누지 않고 혼자만 챙겨 먹자 다른 한 머리가 이를 질투해 독과(毒果)를 몰래 먹었고 결국 모두 죽게 됐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지금 세상이 그러하다. 상생(相生)의 길이 훤히 보이는데도, 혼자만 살겠다고 걸어가는 길이 실상은 상극(相剋)으로 가는 첩경(捷徑)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것은 개인의 욕심과 소통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 괴질로 인해 사회가 흥흥한 지금 더욱 공감어 가는 사자성어라고 하겠다.

위의 '공명지조'와 비슷한 이야기가 중국 신화에도 나온다. 바로 중국의 남쪽에 있다는 장고족(長股族)과 장비족(長臂族)에 대한 이야기다. 장고족과 장비족은 산해경(山海經), 해외남경(海外南經)에 나오

는 전설상의 국가에 사는 민족들이다. 장고족은 다리가 기형적으로 긴 민족을 말하고, 장비족은 반대로 팔이 기형적으로 긴 민족을 말한다.

이들은 바닷가에서 살면서 생선을 잡아먹으면서 서로를 경계하고 다투면서 살아왔다. 하지만 인근 바다에 생선들이 다잡히자 다리가 긴 장고족도, 팔이 긴 장비족도 둘 다 생선을 잡지 못하여 생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이때 두 민족은 소통을 통해 서로 뜻을 확인하고 상생의 길을 택하게 된다. 즉, 장고족에게 장비족이 업혀서 먼바다까지 나아가서 생선을 잡을 수가 있게 되었고, 이들은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었다. 이 전설은 타인에 대한 배려 및 소통, 협업 및 상생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중국의 이 전설은 일본에도 전해졌는데 그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다. 바로 '테나가아시나가' 전설이 그것인데, '테나가'는 팔이, '아시나가'는 다리가 극단적으로 긴 거인들이었는데, 이들은 이러한 체형 때문에 '아시나가'가 '테나가'를 업고 행동한다. 이 둘은 난폭한 성격 탓에 종종 산에서 내려와서 항해하는 배를 덮치거나, 마을 사람들을 잡아먹는 나쁜 짓을 일삼았다고 한다. 결국 이들은 그 지역의 수호신인 '오모노이미노카미'라는 선신(善神)에 의해 벌을 받게 된다. 이들의 행동은 위의 장고족, 장비족의 내용과 유사해 보이지만, '불의(不義)'라는 잘못된 지향성으로 인해 상생이 아닌 공멸(共滅)이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장교라는 직책을 가지고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게 되는 사랑하는 백호 55기 제자들이여! 초급장교로서 항상 부하들을 이해하고 배려해야 한다. 그리고 부사관들과 상생(相生)의 파트너로서 항상 소통하고 같은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행동이 국가와 민족, 자신에게 몇몇한지를 항상 고민하라. 혼자 이끌어 나가는 세상보다는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훨씬 아름답다.

### 교학상장(敎學相長)을 생각하며

#### 충성대 칼럼

김종환 교수(前 국어과교수, 現 재향군인회 대구지회 이사)



"정말 미안(未安)한 것은 선생님이 육군3사관학교(陸軍3士官學校)의 교수(敎授)로서 34년간(年間) 봉직(奉職)하며, 사관생도(士官生徒)들과 학생장교(學生將校)들에게 <대학국어(大學國語)>, <문장론(文章論)>, <화법(話法)>, <문학개론(文學概論)>, <군사한자(軍事漢字)>, <실용한문(實用漢文)>, <교양한문(敎養漢文)>, <문장(文章)과 화법(話法)> 등의 과목(科目)을 교육(敎育)하면서 최선(最善)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때 저의 강의(講義)를 들은 많은 생도(生徒)들과 학생장교(學生將校)들에게는 늦었지만 참회(懺悔)하는 마음으로 정말 미안했음을 전합니다. 정말 미안했습니다. 그 보상(報償)을 하기 위해서 다시 육군3사관학교를 방문(訪問)하여 죄송(罪悚)했다는 이야기도 하고, 특강(特講)을 한다면 제 마음에 남아있는 미안함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이 있으면 제 진정(眞情)한 마음을 관계되는 분들에게 두루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의 글은 월간 <소년문학>에 연재하고 있는 '재미있는 한자 이야기(제33회, 2019년 5월호)'에서 진심으로 참회하며 고백한 마음속의 이야기를 밝힌 글이다.

교학상장(敎學相長)이란 <예기(禮記)>에 나온다. '가르치고 배우면서 함께 성장한다'는 뜻이다. 그러니 가르치는 교수는 학생들

을 잘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배우는 학생은 교수에게 잘 배우려고 노력해야 함께 발전한다는 뜻이다. 정말 멋진 이야기다. 그런데 나는 '교학상장'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교학상장(敎學相長)'이 잘 되려면 먼저 교수가 노력해야 하는데, 이것은 바로 공자(B.C. 551~479)님의 교육철학인 "배우는데 싫어하지 않았고, 가르치는 데 게으르지 않았다"는 "학불염교불권(學不厭敎不倦)"으로 교수가 먼저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학(學)'에도 '교(敎)'에도 최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미안하다.

사관생도들과 학생장교들을 교육하면서도 '교학상장'과 '학불염교불권'의 뜻을 알았지만, 그것을 철저히 실천하지 못했기에 후회를 하고 있다. 교수가 잘 가르치면 생도들은 열심히 공부하여 우수한 장교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지면을 통하여 후배 교수들에게 퇴임 후라도 저와 같이 반성하며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칼럼을 쓰는 것이다.

시간은 흘러간다. 교수의 시간도 흘러가고 사관생도들의 시간도 흘러간다. 흘러가는 그 시간과 세월 속에서 교수와 생도들은 '교학상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그리하여 사랑하는 생도들은 자랑스럽고 위대한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주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 코로나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병원관계자에게 박수를 보내며...



▲ 학교방역요원들이 병원 일대를 소독하고 있다

학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확산으로부터 학교 장병 및 사관생도를 보호하기 위해 매일 방역 활동을 하고 있다.

본교는 전 인원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손 씻기와 손 소독제 사용을 생활화하고 있다. 또한, 생활관 및 공동구역을 자주 환기하고 청소를 실시해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고, 외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코로나 예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 ‘검이 짧으면, 일보 전진하라’

사회 저명인사 칼럼

정창주(구미대학교 총장)



긍정적인 마인드로 도전하는  
정신이 아름답다!

검단지측(劍短知則) 일보전진(一步前進)  
여건불비(與件不備) 노력배가(努力倍加)

이 말은 ‘검이 짧다고 생각되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자신에게 주어진 여건이 부족하다면 노력을 더하라’는 의미다.

살아가면서 고단하거나 포기하고 싶을 때, 마주하게 된 상황이 불만족스럽거나

성실한 나를 놓고 싶을 때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하고 긍정적인 나로 돌려세우는 힘을 가진 귀한 문장이다. 이 말은 내가 아끼고 좋아하는 말이자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를 책임질 젊은 인재들에게 인생의 선배로서 해주고 싶은 말이기도 하다.

세상을 살다 보면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서 시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을 뿐 여건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을 시작하게 된다. 부족한 만큼 더 노력하고 열악한 만큼 한

걸음 더 전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주어진 조건을 탓하면서 주저앉아 신세타령만 하는 사람들에게 성공이나 승리는 불가능한 일이 되어 버린다. 그래서 나는 학생들에게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적극적으로 행동’ 할 것을 늘 강조한다.

과역사에 길이 남게 될 명량해전에서 대승을 거두고 조선을 구하는 결정적 계기를 맞이하게 됐다.

만약 충무공께서 부족한 전력을 탓하면서 결전을 포기했다면 조선의 앞날은 어떻게 되었겠는가? 이렇듯 자신의 어렵고 불리한 조건과 처지를 긍정적인 마인

## “무한한 도전정신으로 무장한 멋진 장교가 되길”

사관생도 여러분들은 백의종군했던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명량으로 덮쳐오는 200여 척의 적군 앞에서 겨우 12척의 판옥선을 가지고도 전력의 열세를 걱정하는 임금에게 이순신 장군은 그 유명한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고, 이 보잘것없는 신하가 죽지 않은 이상 싸워 볼 희망이 있다’며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그 결

도로 극복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얻게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여러분 스스로 정예장교라는 자존심을 가지고, 무한한 도전정신으로 자신에게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열정적으로 노력하며, 적극적으로 헤쳐나가는 멋진 장교, 육군3사관학교 생도가 되기를 응원한다.

## 미래전장의 변화와 새로운 인재상

미래의 군사발전 이야기 ⑤

제갈덕주(꿈창작연구소 소장)



지난해 칼럼을 시작하면서 미래전장에 대한 이야기로 ‘드론전’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향후 전장은 ‘공성전’보다 ‘수성전’의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며, 이는 드론에 의한 요인암살 작전에 의한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월 미국이 드론을 활용해 솔레이마니 이란 사령관을 피살함으로써 드론 암살작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사건 직후 각국 정부는 안티드론에 대한 연구와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바야흐로 드론전이 전쟁 양상을 바

꾸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 정부 또한 드론전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으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1월 대통령 주관으로 진행된 ‘2020년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안티드론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날 국방부는 레이저를 활용하여 드론을 직접 공격하는 안티드론 시스템을 선보였다. 이 대공 무기는 레이저를 활용하여 드론을 파괴하는 하드킬 방식으로, 드론의 취약부에 레이저 빔을 집중하여 발화시키는 방식이다.

이 기술은 2016년부터 국방과학연구

소가 개발해 온 것으로서 현재 정밀 타격이 가능한 실용화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러한 공격 방식은 정밀성이 요구되어 기상 악화 등 다양한 환경적 요인에 의한 문제점이 있어 추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국방부는 전파 교란을 통한 소프트킬 방식의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

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문제는 단순히 기술의 발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여도 그 마지막에는 늘 ‘사람’이 존재한다.

드론전이 되었던 로봇전이 되었던, 또는 그 어떤 미래전이 되었던 결국 그것을 이해하고 풀어나가야 하는 것은 ‘사람’이다. 특히 조직에는 ‘인재’가 필요하다.

## ‘인재’로서 ‘장교’의 역할은 ‘미래전장’을 대비하는 것

다. 이는 통신용 전파나 GPS를 교란하여 드론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으로서 현재 공군 20전투비행단 등에서 시범 운용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벌써부터 미래전장의 양상이 급격히 달라지고 있다. 기상천외한 신식 무기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으며, 수많은 신기술이 도입되고 있어 군사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그 동향을 모두 파악하고 숙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나 이제 그 문제는 당면한 현실이 되어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는 인재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읽고 이해하며 이끌어 나갈 ‘인재’가 필요하다. 그러한 ‘인재’로서 ‘장교’의 역할은 이제 ‘미래전장’을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공지식 중심의 훈육에서 벗어나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능동성과 적극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육군3사관학교의 훈육 철학 또한 이러한 시대정신에 부합하도록 거듭나야 할 시점이다.

꿈을 위한  
최고의 선택!

2020. 4.27(월) - 5.31(일)

- 접수 : 인터넷(www.univapply.co.kr)
- 문의 : www.kaay.mil.kr  
(054)330-3710~11

2021학년도 정시생도(58기)

- 학력 : 4년제 대학 2학년 이상 수료(예정) 및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 연령 : '96.3.1~'02.2.28 출생의 대한민국 국적의 미혼남·여

2022학년도 예비생도(59기)

- 학력 : 2·4년제 대학 1학년 재학생, 3년제 대학 2학년 재학생
- 연령 : '97.3.1~'03.2.28 출생의 대한민국 국적의 미혼남·여

— 호국간성의 요람 —

육군3사관학교

Korea Army Academy at Yeongcheon



독자투고

# 사관생도의 변화와 다짐



소령 허광석

(교수부 인문사회학처 국제관계학과)

육군3사관학교는 세계 유일의 편입학 사관학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3사관 학교 생도들은 비교적 자유로운 문화에서 2년 이상 대학교 과정을 마친 후 입교하기 때문에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시각을 지니고 있어 임관 후 부대의 지휘자와 참모로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장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임관을 위해 사관생도들은 또래의 대학생들과는 달리 학위교육에 더하여 각종 군사훈련과 인성·품성 함양 교육, 병영 생활을 하는데, 1분1초가 촉박한 우리 생도들은 한정된 시간 내에서 몰입을 통한 성과를 내야 하고 몰입에 있어 교수와 훈육요원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필자는 국제관계와 관련된 과목을 생도들에게 가르친다. 전공과목 수강생도 중 전수대학과 전공이 일치하는 경우는 20% 미만이다. 필자 역시 전수대학과 생도 때의 전공이 일치하지 않아 많은 어려

움을 겪었으나, 간절함으로 극복하고 지금은 생도들을 가르치는 자리에 서 있다.

강의자로서 간절함을 생도들에게 강요하기보다는 강의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생도들을 몰입시키기 위한 것이 나의 임무라고 생각하여 생도들에게 강의내용을 어떻게 체득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으며, 경험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5-TOOL을 활용한 방법을 적용하게 되었다.

5-TOOL은 학습을 위한 5가지 방법이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쓰고, 머리로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강의는 학습자에게 눈과 귀로 인지시킨다. 즉, 시청각적인 요소를 강조하며 이해를 도모한다.



내가 학습자였을 때, 그러한 강의를 듣고 난 후의 느낌은 “수업 잘 들었네.” 정도였던 것 같다. 그래서 한정된 수업시간이지만, 몰입을 통한 효과를 내기 위해 3가지 방법(쓰기, 생각하기, 말하기)을 더 활용하게 되었고, 생도들의 변화를 관찰하게 되었다.

수업 내용에 대해 요약 정리할 시간을

부여하게 되면, 능동적이든지 피동적이든지 내용을 적으며 눈으로 내용을 익히고, 손으로 그 내용을 적게 되며 머릿속으로 한번 되뇌는 생도들을 바라보게 되었다.

또한, 요약정리 후에는 옆의 동기생과 학습 내용에 대해서 대화를 하도록 유도하였을 때, 대화를 하며 학습 내용을 생각하고 모르는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보는 모습을 통해 체득화가 되는 과정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다.

강의시간이 끝날쯤, “오늘 학습한 사항에 대해 발표할 생도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3분장 이상의 답변이 어렵지 않은 현상을 확인하였다. 어떻게 보면 강의자와 학습자 모두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게 된 것이다.

55기 생도들은 임관식을 진행하였으며, 56기 생도들은 4학년으로 진학했다. 두 학기의 강의를 마치며, 대화의 수준이 높아진 사관생도들을 바라본다. 장차 우리 군의 미래를 책임질 사관생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 선배 장교의 흐뭇함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든든함으로 이어질 것이라 확신한다.

앞으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나는 몇 번이고 나의 옷매무새를 바로잡으며, 생도들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한다.



지역문화탐방 6

## 불멸의 가수 김광석의 흔적을 느끼며 감성에 빠질 수 있는 곳

김광석을 모르는 사람도 그의 음악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만큼 수많은 히트곡을 남겼다.

그는 입대하는 군인의 심정을 노래한 ‘이등병의 편지’부터 짝사랑의 애달픈 마음을 표현한 ‘사랑했지만’, 서른 살의 번뇌를 시적으로 풀어낸 ‘서른 즈음에’, 노부부의 슬픈 사별을 추억과 함께 승화시키는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등 주옥같은 가사들로 생의 순간순간을 슬프게, 또 아름답게 표현한 싱어송라이터였다.



안타깝게도 젊은 나이에 생을 달리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억하며 해마다 추모제와 뮤지컬, 콘서트, 방송 프로그램 등을 만들기도 했다.

## 대구 김광석 거리를 방문하다

대구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은 그가 태어난 곳인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방천시장 주변에 흐르는 대구의 아름다운 도시하천으로 유명한 신천을 따라가다 보면 있다.

1980년대 통기타와 하모니카를 연주하며 특유의 음성으로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불멸의 가수 김광석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거리이다.



다시 그리기 길이라는 명칭은 김광석이 발표한 음반 ‘다시 부르기’에서 착안하여 지어졌다고 한다.

‘그리기’는 김광석을 그리워 하다(Miss), 그린다(Draw)라는 중의적인 의미를 담아 ‘우리 곁에 없는 김광석을 그리워하며 그를 이 거리에 그려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를 추억하는 김광석 거리에 들어서면 먼저 커다란 통기타가 눈에 들어온

다. 김광석의 앨범과 피규어가 정리되어 있는 스토리하우스, 그가 남긴 노래들을 벽화로 표현한 걸 보니, 생전 환하게 웃곤 했던 김광석의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찢어지기도 한다.



추억의 공중전화와 방문자들의 낙서가 남아 있는 전봇대, 상점마다 전시되어 있는 그의 사진, 통기타를 보니 거리 자체가 ‘추억’이라는 단어와 어울리는 모습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은은하게 흘러나오는 노래를 들으며 벽화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골목길을 거닐면 감성에 취하며 자연스럽게 빠지게 된다.

또한, 길에는 다양한 먹거리를 파는 음식점과 카페, 공방에서도 김광석을 주제로 인테리어와 배경음악을 구성하고 있어 다양한 즐길 것과 볼 것이 있다.

그의 음악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을날의 추억을 떠올리며 좋은 음악과 함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대구 김광석 거리에 오셔서 휴일을 한 번 보내보기를 추천하고 싶다.

김광석의 일생을 알 수 있고 김광석이 살던 시대로 돌아가 그 시대에 맞는 경험을 하고 조용히 생각에 잠길 수 있는 김광석의 거리에 가보는 것은 어떨까?

56기지사생도 권정우



# 내 안의 화(火)를 다스리는 지혜

## 건강상식

국군간호사관학교 간호학 교수 소령 황선영



살다보면 화가 치미는 상황이 있다. 화가 나는 것은 인간의 여러 감정 중에 하나로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그 감정이 지속되거나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되지 못할 때 개인의 정신건강과 대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화가 날 때는 빠른 심장박동과 호흡, 안면 홍조와 같은 자율 신경계 반응도 함께 일어난다.

순간적으로 화난 감정을 여과없이 표현한다면 내제된 강한 에너지, 공격성 때문에 상대방의 심신에 상해를 입히거나 충동적인 행동에 뒤따르는 불편한 관계가 초래될 수 있다. 그렇다고 화가 나는 상황을 무조건 참는다면 제대로 감정표현을 못한 자신에게 더 화가 나거나 억울한 마음이 남을 수 있다. 오히려 화가 자신을 향할 때 우울이나 죄책감이 들고, 사소한 일에도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며, 심한 경우 자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화가 날 때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화를 다스릴 수 있을까?

보통 자신이 화를 내고 있는 순간 왜 화가 나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너무 화가 나 이성이 마비되어 생



각할 여유조차 없다면 잠시만 그 상황을 피하는 것이 좋다. 다행히 격정적으로 화가 치밀어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다는 느낌을 받다가도 30초에서 3분 정도 지나면 다시 이성적인 사고가 가능해진다. '화가 날 때 10까지 세어라'는

흔한 조언 같지만 숫자를 세면서 심호흡을 할 때 요동치던 자율신경계가 안정되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심리학자 아들러(Alfred Adler)는 "감정에는 목적이 있고, 우리는 그 감정들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화가 나는 순간 '화가 난다'는 나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왜 화가 나는지 잠깐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비합리적인 업무에 대한 불만, 억울한 상황, 타인의 이기적인 행동 등 다양한 상황 때문에 화가 날 수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적 열등감, 인정의 욕구 좌절, 불안, 상처, 죄책감, 수치심과 같이 직시하기 불편한 감정이 화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화는 그 감정과 밀접하게 연결된 생각에 대한 해석 때문에 발생한다. 화가 나는 순간 자신의 감정과 생각, 생각에 대한 해석을 가만히 바라보고 알아차리는 여유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화를 내고 있는 불안하고 힘들어하는 자신에게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속상

했구나, 그럴 수도 있지, 이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했으니 잘했어'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화가 나는 내면의 감정을 찾고 자신을 이해한다면 화를 내던 나의 모습이 변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한편, 화를 내는 것이 낫다고 판단된다면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타인에게 해를 주지 않으면서 나의 감정도 달래줄 수 있도록 현명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령 '너는 내가 몇 번을 말했는데 너 때문에 짜증이 난다'는 비난의 방식이 아니라 '몇 번 이야기 했는데 네가 지키지 않으면 <사실>, 네가 규정에 어긋난 행동을 할까 봐 걱정되고 불안해<느낌>, 앞으로는 이 부분은 지켜주면 좋겠어<바람>'와 같은 나 전달법으로 표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화를 내는 것에 있어, 정상과 병적인 것을 구분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스스로 화를 조절하기 어렵고, 분노와 공격성을 과격하게 표출하여 타인의 심신에 상해를 주는 일이 잦거나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렵다면 파괴적 충동조절 및 품행장애 등을 의심해볼 수 있다. 이때에는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여 정확하게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필요 시 상담이나 심리 치료, 약물치료 등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 독자투고

# 명문가(名門家)를 찾아서

## ㉘ 경주 양동(良洞)을 방문하다

2020년 경자년(庚子年) 백색 쥐의 해, 첫 명문가를 찾아서는 많은 분이 함께했다. 1월 14일부터 1월 15일까지 교수부 군사교양학처 워크숍이 진행되었는데, 첫 방문지가 양동(良洞)이었다. 양동은 학교에서 경주 방향으로 약 25분 정도 가면 도착하는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바로 경주 초입에 위치하고 있다.

양동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지만, 2010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 전에 방문이었으니, 10년이 지난 오랜만의 방문이었다.

경주 양동은 안동의 하회(河回)마을, 성주의 한개마을, 현풍의 솔레마을 등과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양반 집성촌이다. 위의 3곳이 풍산 류씨, 성산 이씨, 현풍곽씨 등 한 집안을 중심으로 한 반촌(班村)이라면, 경주 양동은 이와는 조금 다르다.

조선을 대표하는 성리학자이자 문묘에도 배향되는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 1491~1553) 선생의 집안인 여주 이

씨, 이조판서와 우참찬을 지내고 청백리(淸白吏)에도 녹선된 우재(愚齋) 손중돈(孫仲墩, 1463~1529) 선생의 경주 손씨, 두 집안이 서로 협동하기도 하고 경쟁하기도 하면서 양동을 600여 년을 이끌어 왔다.



▲ 무첨당(無忝堂)



▲ 서백당(書百堂)

양동은 가옥의 보존상태 및 유교적 정신유산이 잘 보존되었다고 판단하여, 1984년 국가 민속문화재 189호로 지정되었다. 이후 1992년에는 영국의 찰스 왕세자가 방문했으며, 2010년에는 안동의 하회마을과 함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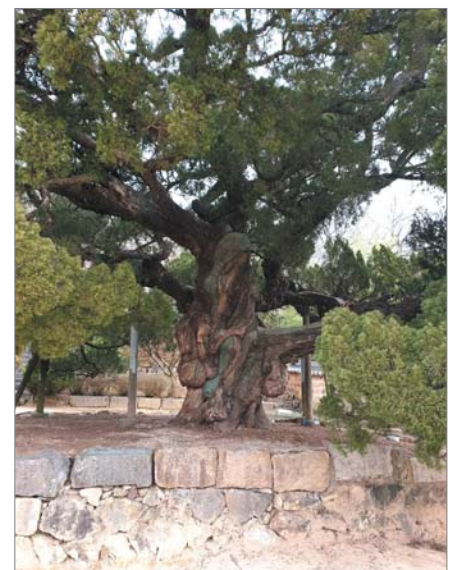
양동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으로도 유명한데, 100년이 더 된 기와집과 아담한 초가집, 나지막한 토담이 잘 어우러져 있

며, 마을 뒤편에는 경상도 지역에서는 찾기 힘든 넓은 평야안강 평야가 아름답게 펼쳐져 있다.

최근 양동에는 축하할 일이 한 가지가 더 있다. 2019년 7월 한국의 서원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유네스코는 성리학의 이념을 교육하는 장소인 서원을 세계인들이 반드시 보호해야 할 중요한 유적으로 보고 지정하였는

문화유산을 두 곳이나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명문가가 된 것이다.

양동마을의 구석구석이 모두 아름다운 유산이지만, 특히 회재 선생의 종택인 무첨당(無忝堂, 대한민국 보물 제411호), 우



▲ 서백당(書百堂) 앞 행나무

데, 당시 한국에서는 9곳의 대표적인 서원을 등재하고자 노력하였고, 그 9곳의 서원 중 회재 이언적 선생을 배향하는 옥산서원이 포함되었다. 옥산서원은 양동에서 차로 10분이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여주 이씨의 자부심은 더욱 대단하였다. 경주 양동과 마찬가지로 하회마을 인근에 있는 병산 서원(서애 류성룡 선생 배향)도 작년 7월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즉 두 집안은 세계

재 손중돈 선생과 회재 이언적 선생이 태어난 장소인 서백당(書百堂, 중요민속자료 제23호), 서백당 앞에 수령을 측정할 수 없는 커다란 행나무(경상북도 기념물 제8호), 우재 손중돈 선생이 직접 살았던 관가정(觀稼亭, 보물 제442호) 등은 놓쳐서는 안 될 세계에서 인정한 문화유산이며, 우리가 오랫동안 보존해야 할 정신적, 문화적 자산이다.

중령 최재호



# 제34차 정기총회 및 제14·15대 총동문회장 이·취임식

지난 1월 21일 서울시 용산구 소재 전 쟁기념관에서 육군3사관학교 총동문회 제34차 정기총회 및 총동문회장 이·취임식을 내·외 귀빈들과 동문회 임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는 제34차 정기총회, 제14·15대 총동문회장 이·취임식 순으로 진행되었다. 정기총회에서는 2019년 한 해 동안 노력해온 업무성과에 대해 보고하고, 2020년의 예산안을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자랑스러운 3사인 상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번 자랑스러운 3사인 상은 김영철(1기, 前 평안북도지사), 손도수(4기, 前 경남동문회장), 문성목(13기, 국방부 자문위원), 이태섭(16기, 前 대전·세종·충남 동문회장), 장병록(17기, 총동문회 자문위원) 등 5명이 수상했고, 총동문회 임원으로 오랫동안 헌신하고 봉사한 동문

23명에게는 공로패를 수여하여 위로와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만들었다. 이어서 진행된 제14·15대 총동문회장 이·취임식 행사는 김중배 장교연합회장(예. 중장)의 축사로부터 전·후임회장인 수인계서 서명, 총동문회장기 이양에 이

어 10여 년간 동문 활동을 해온 정인하 회장(14대 총동문회장)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는 영상 시청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새로 취임하는 한동주 회장(15대 총동문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앞으로 총동문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더 발전하는 총동문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 한동주(15대 총동문회장) 강조사항

1. 국가안보를 튼튼히 해야 한다.
2. 주인의식을 가지고 총동문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3. 의견을 활발히 제시하고 격려·단결해야 한다.

56기사관생도 금성혁



▲ 자랑스러운 3사인 상을 수상한 동문들의 모습



▲ 취임하는 한동주 회장(15대 총동문회장)이 이임하는 정인하 회장(14대 총동문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 제1기 임관 50주년 기념식 및 역사 재조명

지난 1월 17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대강당에서 수많은 내·외귀빈 및 가족, 후배들의 축하를 받으며 육군3사관학교 1기 졸업생 「임관 50주년 기념행사」가 거행되었다. 1970년, 첫 육군소위(771명)로 임관된 1기 졸업생들 가운데 500여 명이 역전의 노장(老將)의 모습으로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행사는 박용태 총무국장의 사회로 제1부 식전행사, 제2부 정기총회, 제3부 50주년 행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 1기 졸업생을 비롯한 내외 귀빈 등 500여 명이 국기를 향하여 경례하고 있다.

먼저 식전행사에서 김정환 회장(제36대)은 기념사를 통해 “우리 1기생은 924명이 입교하였으나, 정예간부 육성의 고된 훈련과정을 마친 771명이 50년 전 오늘 임관한 후 반세기 만에 다시 모였다. 하지만 오늘 임관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고 조국을 위하여 전·후방과 월남전에서 용전분투하다 전사 및 순직한 동기생들의 살신성인 정신이 다시 떠올라 뭉클한 느낌이 든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선배 없이 외롭게 야전에서 살아왔기에 더욱 후배들을 사랑하고 있다.

우리는 임지에서 피와 땀 눈물을 흘리며 임무수행에 불철주야 매진

하였던 지난 추억을 거울삼아 앞으로 더욱 모교 및 동문 사랑과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후 진행된 임관 50주년 행사를 맞아 재 축 케이크 커팅식이 진행되었다. 커팅식에는 김정환 회장, 김운태 후임 회장, 정규민 추진본부장, 광형근 자문위원, 김분범 조직위원장, 문경수 초대회장, 이양수 전 총동문회장, 박재화 전 발전기금이사장, 정인하 총동문회장, 후임 한동주 총동문회장, 후배기 대표로 2기 박복규 회장이 함께 참여하여 육군3사관학교와 총동문회의 무궁한 발전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 1기생 신·구 회장단 및 총동문회장 등이 참석하여 임관 50주년 축하 케이크 커팅을 하고 있다.

한편, 정인하 총동문회장은 축사를 통하여 “존경하는 1기 선배님! 대망의 2020년 새해 시작과 함께 임관 50주년을 맞이하신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선배님들은 그 어떤 욕심도 요령도 없이 오직 하나! ‘나라를 구한다’는 일념으로 살아오셨다”고 하며, “저희 후배들은 선배님들이 개척하신 지난 50년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의 100년을 향하여 거침없이 달려갈 것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56기사관생도 박다애

## 3사인의 혼(魂) 1기 졸업생을 조명(照明)하다

### 인고(忍苦)의 '영천 벌의 혼' 1기생들

1968년 10월, 3사관학교가 설립된 이후, 1969년 3월 1기생 최초모집에 전국에서 3,412명이 지원하였다. 그중 924명이 최종합격함으로써 35대 1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가입교를 하게 되었다. 혹한 속에서 속옷 바람으로 자갈밭을 맨발 도로 보행, 엄격한 90도 직각 식사, 매일 아침 4km 떨어진 단포강까지 구보, 세면 후 다시 구보로 복귀, 모든 훈련장에서 학교까지는 단독군장으로 구보 복귀하는 등 장교로서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요구하는 '정예장교 육성'의 대열에서 고되고 힘든 교육과정을 이겨내지 못하고 17명이 퇴교하였다. 그것뿐만 아니라, 참으로 애석하고 안타깝게도 교육훈련 도중에 4명의 전우들이 꽃 같은 젊은 나이에 순직하여 1기생 중 최초로 현충원에 안장되었고 추서에 의거, 죽어서 소위로 임관된 동기들도 있다. 또한, 당시 교육정책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인성 문제 소유자 그리고 생도 및 장교자질 미흡 등으로 총 170명이 중간에 퇴교가 되었고 최종적으로 훌륭한 인격과 품성, 국가관을 소유한 자만이 육군소위로 임관하게 되었다.

1970년 1월 17일 임관식에는 771명(83%)이 영광의 육군소위로 임관하였다. 그중에서 보병 572명, 공병 101명, 통신 26명을 비롯하여 9개 기능별 병과로 분류되어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소위 계급장을 양어깨에 짊어지고 전·후방 임지(任地)로 각각 배치되어 정든 모교를 떠나게 되었고, 골육지정으로 뭉친 동기들과 뿔뿔이 흩어졌다.

### 월남전쟁 및 대침투작전에서 전쟁영웅 용천(湧泉)하다

1기생들은 월남전쟁에서 소부대 지휘자전투소 대장으로 참전 및 GOP 작전지역 또는 후방에 침투한 북한 무장공비 소탕작전에 참전하여 살신성인 정신으로 적진에 뛰어들어 전승에 기여한 공로를 국가로부터 인정받았다. 이무표 중위는 국가 최고의 훈장인 태극무공훈장을, 강영식 중위를 비롯한 11명은 화랑무공훈장을, 강홍만 중위를 비롯한 38명에게는 인헌무공훈장 등 총 50명이 전투유공자에게만 수여되는 빛나는 무공훈장을 수상했다.

1기생들은 육군본부 파월명령에 의거하여 전·후방에서 1차 소대장 1년의 실무경험을 축적한 인원들 중에서 월남파병소대장을 선발하였다.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에 있는 '오음리 특수훈련장'에서 4주 동안의 실전적응전투훈련을 마치고 2차 전투소대장 요원으로 이역만리(異域萬里) 월남전쟁

터에 참전하여 열대정글을 헤치며 월맹 정규군 및 베트공의 총·포탄 속에서 피·땀·눈물을 흘리며 40명의 부하들과 함께 용전분투(勇戰奮鬪)하였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진정한 참전영웅으로서 눈부신 활약을 하였다.

### 50년의 흔적과 미래 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하자

대한민국의 방패 육군3사관학교 1기생 중에서 장군이 총 9명이 탄생되었다. 그중에 육군 대장은 박영하 장군 1명, 소장은 김문범, 김복산, 김군식 장군 등 3명, 준장은 김영철 장군 등 5명이 영예롭게 승진을 하였다. 그 중 장교들의 꿈인 육군대장으로 2006년 11월에 승진한 박영하 장군은 3사관학교 최초로 대장 승진을 하였기에 더욱 돋보인다. 또한, 1기생 중에서 국회의원은 김운환 前 국회의원이었으며, 김영삼 정부 시절에 부산 해운대구에서 13대, 14대, 15대 국회의원선거에 당선되어 민의의 전당에서 국민들을 위하여 최선의 활동을 다녔다.

지난 반세기 동안, 1기생들은 모교의 만행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군에서는 조국·명예·충용인 3사관학교의 교훈을 가슴에 간직하며 호국의 간성으로서 부여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였고, 전역 후에는 지역사회로 진출하여 경제활동에 최선을 다하였다. 또한,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하여 영천 벌을 졸업한 후배들의 귀감이 되었다.

1기생들의 바람이다. 향후 50년! 제4차 산업혁명시대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앞으로 3사관학교의 생도교육은 4차 산업혁명의 국가적 발전과제인 전산적인 사고, 디자인적인 사고, 창의력, 협동 및 합동성, 커뮤니케이션 등 다가오는 미래 전(戰)에 적응하는 능력과 기술력 증진 차원에서 혁신적으로 연구하여 발전하길 바란다.

지난 반세기 동안 1기생 선배들이 걸어온 외로운 개척정신을 거울삼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역경이 닥치더라도 모교의 명예를 퇴색시켜서는 안 되며,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외적인 환경에 적응하길 바라면서 후배들이 군 최고지도자가 더 많이 배출되기를 기원하고 있다. 끝으로 우리 3사인 모두는 대한민국의 파수꾼으로서 앞으로 더욱 훌륭한 호국간성이 되어주길 당부한다.

자료제공 : 함영달(3기) 시인·수필가, 한빛전투수당연구소 대표 총동문회 고문 월남전 참전(소대장), 국방대학원 졸업, 영관장교 예편, 2급 정년퇴직한국문인협회 회원, 2019년 월간문예시조 최우수상(시부문) 수상

자료정리: 56기 사관생도 윤서규



# 학교 발전재단 소식

## 2020년도 학교발전기금 참여 현황

'19. 12. 18~'20. 2. 29까지 기부현황입니다.

※ 범례 : 해당기간 기부액(총 기부액)

**총 자산 76억 5천만원**(2020. 2. 29 기준)

### ■ 단체/일반시민

3사 48기 동기회 300(4,500), 이대영 장학회 100(100)

### ■ 3사관학교 발전과 함께하는 군간부

정한기(육사#39) 2(79), 최완규(육사#44) 2(9), 김호길(육사#48) 2(35), 김태욱(육사#51) 2(12), 두석주(육사#51) 2(144), 이우진(육사#54) 2(46), 박기홍(육사#55) 2(106), 이승규(육사#56) 2(27), 조성근(육사#56) 2(120), 변용성(육사#58) 2(85), 손창호(육사#58) 2(54), 이귀현(육사#58) 2(79), 이주실(육사#58) 2(64), 차도완(육사#58) 2(38), 김대영(육사#59) 2(148), 이용수(육사#60) 100(100), 김진찬(육사#61) 2(49), 홍희중(육사#61) 2(81), 이한우(육사#63) 2(9), 오민경(육사#65) 2(24), 오범진(육사#65) 2(2), 홍인재(육사#66) 2(14), 문준호(육사#67) 3(30), 이찬우(육사#68) 2(24), 권성진(육사#69) 2(12), 부형준(육사#69) 1(38), 이진호(육사#24) 2(67), 한덕수(육사#26) 2(81), 고성진(육사#31) 2(15), 구희곤(육사#32) 2(88), 이두진(육사#33) 2(2), 곽홍렬(육사#37) 2(14), 송경재(육사#37) 2(108), 조환희(육사#41) 2(22), 황태열(육사#41) 2(137), 김재운(육사#43) 2(36), 김광윤(육사#44) 2(34), 이종민(육사#44) 3(9), 정우람(육사#46) 2(2), 김태룡(육사#48) 2(26), 이세훈(육사#48) 2(7), 민병구(육사#48) 1(13), 홍현신(육사#48) 2(5), 김민범(육사#49) 2(8), 박동선(육사#49) 2(10), 윤정훈(육사#50) 2(11), 김동진(육사#51) 2(34), 구민수(육사#52) 2(67), 최재호(육사#29) 2(108), 최용식(육사#33) 2(10), 이준수(육사#35) 2(92), 장혜익(육사#46) 2(9), 김호근(육사#49) 3(11), 임도현(육사#54) 2(87), 구주현(육사#55) 2(10), 박수영(육사#55) 2(2), 성현애(육사#55) 2(30), 임채훈(육사#55) 1(52), 전여울(육사#58) 2(38), 심정현(육사#58) 2(18), 차성복(육사#45) 1(194), 김소현(육사#46) 2(3), 강소영(육사#49) 2(21), 이희정(육사#49) 2(21), 김형태(육사#22) 2(38), 김세영(육사#28) 2(27), 박승재(육사#30) 2(12), 강찬영(육사#61) 2(14), 정영진(육사#18) 1(19), 최윤정(육사#38) 2(23), 송소연(육사#58) 2(4), 이각우(육사#23) 2(38), 전경익(육사#25) 2(52), 진장철(육사#25) 2(57), (군무원) 김인수 2(20), 류재은 2(176), 안영주 2(26), 양성우 2(48), 유정호 1(1), 정혜란 2(5)

■ 신분 미확인 : 김시우 2(7) : 연락바랍니다.

### ■ 졸업 · 재학생도 부모

#### ▶ 졸업생 부모(졸업기수관계)

신충섭(42부) 10(50), 김종순(45부) 6(20), 조경해(45모) 15(720), 장승일(49부) 4(264), 성동모(50부) 6(170), 안승봉(51모) 20(210), 윤우상(51부) 2(72), 정경숙(51모) 2(73), 김현미(52모) 3(31), 이선화(52모) 10(535), 이영미(52모) 9(244), 정정화(52모) 3(324), 김선식(53부) 5(135), 박일심(53모) 4(90), 조정숙(53모) 4(88), 홍성기(53부) 1(47), 황경부(53부) 20(470), 김동주(54부) 2(11), 윤명남(54모) 15(175), 이기성(54부) 9(112), 조은조(54모) 3(25), 주옥자(54모) 10(180), 홍성은(54부) 3(219), 고창희(55부) 10(210), 김명월(55모) 50(100), 김동환(55부) 30(130), 김상균(55부) 5(110), 박철(55부) 6(72), 서원수(55부) 6(46), 유현구(55부) 3(114), 윤연희(55모) 30(240), 이강천(55부) 20(220), 전근화(55모) 10(100),

정수태(55부) 10(110), 정규진(55모) 10(20), 정원섭(55부) 2(103)

※개인 기부액 확인(www.kaayf.or.kr)/내 기부내역 참조바랍니다.

### ▶ 4학년 생도 학부모

고경옥, 김왕기, 김종기, 김현덕, 김효수, 맹현주, 신윤영, 정희숙, 한대희

### ▶ 3학년 생도 학부모 : 임승찬

※ 처음 기부하시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인적사항을 통보바랍니다.  
(동명이인 구분, 영수증 발급, 우편발송등의 업무처리에 필요합니다)  
☎ 054) 330-3180, 330-3182 (월~금 08:30~17:00)

### ■ 졸업생(개인) 참여현황

- ▶ 1기 김용하 5(116), 남훈조 10(1,125), 임관택 2(62), 전수천 2(79), 조운 12(97), 최익환 2(64)
- ▶ 2기 변원서 20(104)
- ▶ 3기 한만우 1000(8000)
- ▶ 4기 임성기 10(60)
- ▶ 5기 김영찬 3(105)
- ▶ 9기 권영호 15(310), 김용채 6(20), 김현기 10(1,128), 윤지환 9(90), 최병학 15(1,145)
- ▶ 13기 김모일 10(155)
- ▶ 14기 김종환 3(39), 안호 30(1,650), 이순진 20(619), 하병욱 3(353)
- ▶ 16기 김갑중 3(42), 이종우 3(142), 황병태 4(282)
- ▶ 18기 구연덕 2(111), 금용백 6(516), 노희태 6(262)
- ▶ 19기 이경희 3(155), 이종형 2(219), 이창호 6(522), 임영갑 30(130), 임종철 2(47), 홍성식 2(180)
- ▶ 20기 김윤희 3(49), 박권순 3(1304), 조길상 6(58), 편철권 100(2,500)
- ▶ 21기 신철수 56(650), 장달수 2(89)
- ▶ 22기 권순태 2(34), 이진성 2(242), 정경호 3(27), 조태환 2(118)

- ▶ 23기 김창수 4(204), 김태일 2(211), 배요식 10(224), 신영찬 2(54), 오승욱 6(228), 정철재 4(100), 허강수 2(253)
- ▶ 24기 곽종만 4(16), 권금락 4(248), 권오봉 3(196), 김도협 2(214), 김지영 140(651), 모경원 2(209), 박세철 2(53), 방성대 2(63), 안연준 3(77), 이문희 2(77), 정정현 2(173)
- ▶ 25기 김남용 2(116), 김만정 2(124), 문봉성 2(134), 서쌍근 2(48), 이은전 5(5), 이종현 2(33), 장광선 6(324), 장무수 2(31), 전창호 10(170), 전희준 2(287), 조재희 2(105), 홍은표 2(183)
- ▶ 26기 신종인 4(163), 신태영 11(100), 유근환 2(17), 이완주 6(95), 이태인 4(26), 임우영 2(226), 장용빈 4(94), 홍순범 2(192)
- ▶ 27기 김덕중 2(50), 김지덕 2(4), 김호복 5(185), 석수열 1(27), 안병욱 2(151), 원희문 10(155), 이희순 3(221), 정월균 2(9)
- ▶ 28기 권승영 1(16), 권양철 2(90), 김진길 2(62), 김창현 2(149), 박기수 2(73), 박용섭 4(137), 서청수 2(154), 유정일 2(23), 윤석찬 3(123)
- ▶ 29기 김강식 2(227), 김용식 2(56), 박성훈 2(135), 박태용 2(114), 이상일 2(170), 이상태 2(192), 이의규 2(97), 임성호 2(146), 최인섭 2(108), 최준호 2(2), 현태식 2(132)
- ▶ 30기 김백중 2(20), 김종권 2(66), 김효성 2(26), 남진우 2(37), 이병길 1(1), 이진 2(131), 임상달 2(101), 주경호 2(95), 홍성범 2(19), 함민호 2(82)
- ▶ 31기 권동호 4(26), 김민식 4(62), 김영태 2(163), 김희엽 2(208), 박서호 2(2), 염항수 2(118), 이재춘 2(192), 이훈복 2(30), 전경인 2(15), 최대집 2(28)
- ▶ 32기 권관덕 6(281), 김화용 2(95), 이태현 2(30)
- ▶ 33~54기 개별 기부현황은 육군3사관학교 발전기금 홈페이지(www.kaayf.or.kr) 또는 『충성대담』에서 확인바랍니다.

## 2020년도 학교발전기금 사용계획

사업분야	사업명	사업비(원)	비고
해외건문확대	생도해외견학 지원	113,300,000	개별/단체견학 지원
학교/입시홍보	생모모집 / 예비생도 교육	31,700,000	입시홍보 지원
	대외 학교홍보	1,600,000	언론홍보 활동
교육증진	학교달력제작 지원	4,400,000	입시홍보용 추가제작
	초빙교수 운영	10,000,000	저명인사 초빙
	우수강사 획득보조	3,500,000	일반학강사
생도활동지원	주요교육 훈련 지원	7,200,000	주요훈련 지원 환경개선
	대외경연대회지원	1,800,000	학술·체육 전국경연대회
계		173,500,000	

## 학교발전기금 참여안내

발전기금 참여계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yle="width: 50%;">• 국민은행 620-01-0861-994</li> <li style="width: 50%;">• 농협은행 766-01-003094</li> <li style="width: 50%;">• 대구은행 049-05-005898</li> <li style="width: 50%;">• 우체국 900969-01-003463</li> </ul>
기부자 기록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좌입금 시에는 기부자명 기록은 띄워 쓰기 없이 6자 이내로</li> <li>- 졸업생 : 00기김삼사, 학부형 : 00박충성부 (00이명예모)</li> <li>• 기부자 기록이 제한되는 경우는 기부 후 사무국으로 기부자 인적사항 연락</li> </ul>



“학교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은 나의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